

# 한국수력원자력 중소기업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한국수력원자력 자재처  
중소기업팀 부처장 김정태

**한** 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핵심이자 근간은 원자력발전소 기자재를 국산화 개발(R&D)하는데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제품과 그 밖의 우수 개발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수원 입장에서 보면 고품질의 기자재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 양자가 상생협력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한수원은 기술혁신 지원, 판로지원, 경영혁신 지원 등 전분야에 걸친 포괄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협력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네트워크 및 신뢰에 기반한 관계자본을 구축하여 한수원-협력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共進化(Co-Evolution)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판로지원 분야의 경우, 신기술인증제품 등 각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규모를 매년 확대하여 발전사 최대 구매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인증제품의 경우 '05년에는 86억원 구매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300억원대를 돌파하여 369억원 구매하였으며, 금년에도 구매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약 400억원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판로지원 분야에서는 원자력분야 핵심 원천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해외 원전시장이라는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을 개

척하고자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OTRA, 전기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꾀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산업진흥회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해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외 진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도국의 경우 신규전력 수요가 대부분이고, 선진국은 노후 설비의 대량 교체가 예상되는 등 지역별, 국가별 차이에 따른 세분화된 전략에 따라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전략에 따라, 각종 국제전시회 출품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수출촉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원자력시장에 중소기업과 동반진출하기 위해 12개 한수원 협력중소기업이 캐나다 원자력 주기기 공급업체인 AECL에 공급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한수원AECL-협력중소기업간 기자재 공급 협력 조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무진기연을 비롯한 12개 한수원 협력중소기업들은 세계적인 중수로형 원자로 공급업체인 AECL사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향후 세계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티에스엠텍 등 3개사는 AECL사에 780만불 수출 달성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원전 주기기 공급사인 GE에너지에



국제전기 등 6개 협력중소기업이 공급자로 등록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캐나다, 중국, 루마니아, 인도 등 해외 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에 협력중소기업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중소기업의 해외 현지수출 전진기지로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사이버 해외 합동사무소' 구축을 추진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협력중소기업이 해외 신기술, 신제품 정보를 용이하게 접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해외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분야에서는, 협력중소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연구개발을 힘써 '07년도에는 12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44건을 무상으로 중소기업에게 이전하여 한수원 협력중소기업이 핵심원전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한수원 사내 전문가를 단기파견하는 기술자문단 제도, 한수원 퇴직인력을 1년간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제도 등 '기술코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협력개발과제를 15건 이상 추가발굴하고 이전된 기술이 사업화까지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품질보증인증(KEPIC) 취득 지원 등 각종 인증취득지원, 중소기업 인력양성 교육 시행, 한수원 '뉴' 파워대출 등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특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중소기업지원시스템(sPRM: strategic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전자발주론을 본격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최대 애로 사항 가운데 하나인 자금부족 문제를 시중금리보다 1~2%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최종단계라 일컬어지는 성과공유제를 정착시키는 한해였습니다. 발전6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성과공유 품목을 13.4억원 구매하여 발전사를 선도하였으며, 그 외에도 8개 성과공유 품목을 별도로 발굴하여 176억원을 우선구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발전사 공동 성과공유품목과 별도로 10개 성과공유품목을 추가 발굴하여 상생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과 성과에 기반한 파트너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순한 생존을 위한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지원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끝.

